

간호대학생의 카데바 모델을 이용한 인체해부 관찰경험

강현임, 이영란
원광보건대학교

The experiences of human body anatomy observations using the Cadaver Model in the nursing students

Hyun-Lim Kang, Yeong-Ran Lee
Dept. of Nursing,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요약 간호대학생의 카데바 모델을 이용한 인체 해부 관찰 경험을 확인하여 카데바 실습 프로그램 개발 및 해부학 교육과정 등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다. 19명을 대상으로 2팀의 포커스그룹 인터뷰(Morgan, 1997)로 수집된 자료를, Colaizzi 분석방법을 선택하여 간호대학생의 카데바 모델을 이용한 인체 해부 관찰 경험의 의미와 그 본질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간호대 학생의 카데바 모델을 이용한 인체 해부 관찰 경험에 대한 분석 결과는 6개 범주와 13개의 주제묶음(theme clusters)으로 도출되었다. 본질적 구조로는 '카데바 실습에 대한 양가감정', '실제에 맞닥뜨림', '값진 것을 배움', '인간을 대하는 마음이 깊어짐', '간호인이 되어 감을 느낌', '온전히 내어줌에 대한 숙고.' 등 6개의 범주로 도출되었다. 간호대학생은 카데바 실습을 통해 해부학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라 인간의 이해, 생명 및 존중, 죽음, 직업윤리 등을 경험하고 또 고민하면서 간호인이 되어가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향후 해부학교육에 대한 기초자료 뿐만 아니라 해부학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교육방법에 도움이 되고, 인간의 이해 및 생명윤리, 간호윤리 등을 확립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위해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주제어 : 간호대학생, 카데바, 경험, 포커스그룹, 질적연구

Abstract It is to provide the basic materials for the development of a cadaver practice program, the anatomical, educational programs, etc. by confirming the experiences by the nursing college students of the human body anatomy observations using the Cadaver Model. It was intended to understand the meaning and the essence of the experiences by the nursing college students of the human body anatomy observations using the Cadaver Model by selecting the Colaizzi Analysis Method with the materials collected from the interviews with 2 focus group teams. Regarding the essential structure, 6 categories were arrived at, including 'The ambivalence regarding the cadaver practice', 'Running into the true reality', 'Learning a valuable thing', 'The mind for facing the human beings has become deep', 'The feeling that I am gradually becoming a person who tends the sick', and 'The deliberations regarding the sound giving. It was confirmed that, not only with the understanding of anatomy through the cadaver practices, but, also by experiencing and worrying about the understanding, the life and the respect, the death, the ethics regarding the job, etc. the nursing college students were gradually becoming the persons tending the sick.

Key Words : Nursing student, Cadaver, Experience, Focus Group, Qualitative research

* 이 논문은 2016년도 원광보건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Received 14 February 2017, Revised 21 March 2017

Accepted 20 April 2017, Published 28 April 2017

Corresponding Author: Yeong-Ran Lee
(Wonkwang Health Science University)
Email: sorarosa@hanmail.net

ISSN: 1738-1916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해부학은 간호대학생에게 전문지식을 가진 의료인이 되기 위한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학습하게 될 방대한 간호학 전공과목을 이해하는데 기초가 된다. 뿐만 아니라 간호사가 되어 임상에서 만나게 될 환자들의 질병을 이해하고 간호하는데 꼭 필요한 학문이다.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간호학과 교육과정에서 해부학은 필수 전공기초과목으로 배정하여 1학년 혹은 2학년에 개설되어 교육되고 있다.

그러나 짧은 시간 동안 전문적인 해부학 지식을 쌓아야 하는 교과 과정상의 현실과 내용 및 용어에 대한 어려움과 낯설음으로 인하여 많은 학생들이 해부학에 대한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해부학을 어려워하며, 해부학 학습에 대하여 막연한 부담감과 불안감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1]. 이에 해부학의 이해를 돕기 위해 컴퓨터를 기반으로 한 슬라이드 제작, CD롬, On-line, 3D 프로그램, 컴퓨터시뮬레이션 등의 디지털 융복합 첨단과학 교수매체 뿐 만 아니라 인체모형, 컬러 찰흙 등 다양한 시도를 해부학 수업에 적용하고 있다[2, 3]. 하지만 이러한 다양한 교육방법이 항상 최고의 교육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효과적인 학습이 되기 위해서는 이론 수업과 더불어 카데바(Cadaver)를 대상으로 한 실습이 필수적이다[4]. 카데바 실습은 보다 정확하게 인체 해부의 구조와 기능을 이해하게 되며 실제 구조물을 직접 만지고 관찰함으로써 보다 생생하게 기억되도록 한다[5].

이처럼 간호대학생들에게 해부학의 효과적인 실습방법은 눈에 보이고 직접 만질 수 있는 카데바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지만 카데바 실습은 비용 문제, 실습장소의 부족 및 실습 접근성의 어려움 등이 있어, 카데바 실습이 각 학교의 상황에 맞게 부분적으로 실시되고 있다. 더군다나 카데바 실습을 할 기회가 주어지더라도 실습시간, 횟수도 제한적이어서 차별하게 해부학을 공부하기에 턱 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따라서 이러한 제약[制約] 조건에서도 카데바 실습을 운영하는 간호대학의 학생을 대상으로 카데바 실습 경험이나 교육의 효과를 평가하는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제한된 환경과 정해진 시간에 운영되는 카데바 실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간호학과 학생에게 적합

한 카데바 실습 운영 및 융복합적인 교육방법의 적용, 실습 전에 갖추어야 할 소양 등 세심하게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카데바 실습에 대한 연구는 시신 해부 실습 필요성에 대한 설문연구가 있었는데[6], 이는 해부학 수업개선에 기초가 되기 위한 예비실험 연구였다. 따라서 예비실험 연구 외에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또 한 편은 간호학생의 인체 해부 관찰 경험에 대한 질적 연구[7]가 있었는데, 다양한 카데바 실습환경에서 다양한 대상으로 서로 다른 연구자의 반복연구는 연구결과를 이론화 하는데 있어 학문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효과적인 해부학 교육을 위해 카데바 모델을 선정하여 공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제한적인 환경에서 시행되고 있는 인체해부관찰 경험의 의미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카데바 실습의 효과를 향상시키고 간호전문인이 되기 위해 기본이 되는 해부학교육에 대한 기초자료 뿐 만 아니라 인간의 이해 및 생명윤리, 간호윤리 등을 확립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카데바 모델을 이용한 인체해부관찰의 경험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카데바 실습 교육 향상 및 간호학과 학생에게 필요한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 문제는 “카데바 실습 경험은 어떠한가”이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카데바 모델을 이용한 인체해부관찰 경험을 탐색하기 위해 그룹 내 상호작용을 통해 집중된 자료를 충분히 얻을 수 있는 포커스그룹(Focus Group)인터뷰를 이용하였다[8]. 포커스그룹 인터뷰는 아직 간호학문에 대한 경험이 적은 2학년 간호학생들이 그룹 토론을 통해 참여자들 사이에서 공유와 비교 과정을 만들어 내면서 좀 더 다양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또 참여자의 개인적 속성보다 경험들 전체의 공통된 속성을 도출해 내는데 초점을 맞춘 Colaizzi 분석방법을 선택하여 의미와 그 본질을 파악하고자 하였다[9].

2.2 연구참여자 선정

본 연구의 참여자는 W대학교 2학년으로 진급하는 간호학과 학생으로 카테바 모델을 이용한 인체해부관찰 경험이 있는 학생 중에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참여하기로 동의한 총 19명이다. W대학교 간호학과는 WCC(World Class College)현장실무능력강화 프로그램의 일환인 해부학실습체험프로그램을 2학년으로 진급하는 간호학생을 대상으로 W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 교실에 의뢰하여 운영하였다. 8개의 조로 나누어 각각 테이블 별로 1구의 카테바를 중심으로 해부학 교수 5명 및 연구조교 3명이 각자 맡은 장기별로 로테이션하면서 지도하였다. 실습시간은 4시간이었다.

2.3 자료 수집 방법 및 절차

자료 수집은 2016년 5월 3일과 5월 31일로 2개의 팀으로 각 그룹은 9명, 1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2회의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통해 시행되었다. 인터뷰 질문내용은 카테바 모델을 이용한 인체 해부의 이론적 고찰로 확인된 내용을 반구조화 된 질문지로 작성하였고, 질적 연구 경험이 있는 2명 교수의 검토를 통해 구성하였다. 포커스 그룹 인터뷰는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자유롭게 주제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도록 원형 테이블이 있는 회의실에서 진행되었다. 모든 면담은 녹취되었고, 각 면담 소요시간은 각 80~100분이었으며, 녹음된 내용은 참여자가 표현한 언어로 연구자가 필사하였고, 이를 문서화시킨 후 그 내용을 다음 인터뷰 계획에 반영하였다. 자료수집 과정은 1차 인터뷰 후 분석결과를 통해 추가적인 인터뷰를 실시하였으며, 자료가 포화상태에 이를 때까지 인터뷰가 이루어졌다. 포커스그룹 인터뷰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으며, 구체적인 질문은 다음과 같다.

- 시작 질문 : 인터뷰 전에 서로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각자 간단히 본인 소개를 해주세요.
- 도입 질문 : 카테바 모델을 이용한 인체 해부 관찰 경험 전에 카테바 실습 하면 떠오르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해주세요

- 전환 질문 : 카테바 모델을 이용한 인체 해부 관찰 하면서 느낀 경험을 말씀해주세요.
- 주요 질문 : 카테바 실습 과정에서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요? 카테바 실습의 강점과 한계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카테바 실습 하고 나서 본인에게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입니까?
- 마무리 질문 : 말씀해주신 내용들은 간략하게 요약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외에도 추가로 하고 싶으신 얘기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2.4 윤리적 고려

참여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일 대학교의 연구윤리심의위원회의 심의(승인번호:WKIRB-201605-SB-025)를 통과하였다. 참여자에게 연구 이외의 자료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을 설명하였고 모든 인터뷰는 녹음하여 진행됨을 설명하였다. 참여하기를 동의한 후 동의서를 받았으며, 비밀 유지와 익명성을 설명하였고, 참여자가 참여과정에서 언제나 원하면 그만둘 수 있음을 알려주어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2.5 자료분석

자료 분석은 대상자의 면담내용에서 명확한 의미를 찾아내고 그 현상을 정확하게 진술하기 위해 Colaizzi(1978)의 현상학적 방법으로 분석하였다[9]. 1단계에서 연구자들은 필사된 기술들을 반복하여 정독하였다. 2단계는 연구자가 의미 있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밑줄을 그어 참여자들이 카테바 모델을 이용한 인체해부관찰 경험과 관련된 의미들을 도출하였다. 3단계는 대상자의 언어를 과학적인 언어로 변형시키기 위해 문장에서 도출된 의미(formulated meaning) 있는 진술들을 좀 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형태로 재 진술하였다. 4단계에서 의미 있는 진술과 재 진술로부터 31개의 주제(theme)를 확인하고 각 주제와 관련된 연구 참여자의 진술을 분류하였다. 5단계는 31개의 주제 간의 유사성과 차이를 비교하면서 13개의 주제묶음(theme clusters)을 정하여 6개로 범주화하였다. 도출된 주제와 주제묶음들을 기술된 자료와 비교하여 반복해서 읽으면서 이들이 맥락적으로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의미 있는 진술들을 잘 반영하는 지를 확

인하였다. 6단계는 도출된 결과들을 카데바 모델을 이용한 인체 해부 관찰 경험에 통합하여 주제에 따라 현상학적 글쓰기를 하였으며, 총체적으로 기술하고, 유효성을 확인하였다. 7단계는 분석된 단계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참여자들에게 분석결과를 보여주고 연구자들이 기술한 내용과 분석결과가 카데바 모델을 이용한 인체 해부 관찰 경험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였다.

한 인체 해부 관찰 경험에 대한 포커스 그룹 인터뷰 자료를 분석한 결과, 6개 범주와 13개의 주제묶음(theme clusters)으로 도출되었다. 연구를 통해 나타난 간호대학생의 카데바 모델을 이용한 인체 해부 관찰 경험의 본질적 구조로는 ‘카데바 실습에 대한 양가감정’, ‘실체에 맞닥뜨림’, ‘값진 것을 배움’, ‘인간을 대하는 마음이 깊어짐’, ‘간호인이 되어 감을 느낌’, ‘온전히 내어줌에 대한 숙고’ 등 6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Table 1>.

3. 연구결과

본 연구는 19명의 간호대학생의 카데바 모델을 이용

3.1 카데바 실습에 대한 양가감정

‘카데바 실습에 대한 양가감정’에는 ‘심적 부담감’, ‘한

<Table 1> The experiences of human body anatomy observations using the Cadaver Model in the nursing students

Category	Theme clusters	Concepts
The ambivalence regarding the cadaver practice	Psychological feeling of burden	Had a dreadful thought regarding the cadaver practice.
		The smell of the cadaver worried me.
	Expected to one's fill.	The expectations regarding the cadaver practice.
		The expectation that a cadaver can be seen directly.
Running into the true reality	Actually, a different experience.	Different after looking directly.
		Different from a live body.
		Different from what I imagined.
		The mistaken preparations of the body and the mind.
	Realized that the human body is a great work of art.	Felt that the human body is strong.
		Felt that the human body is scientific.
Shaken off the fear and strived for practice.	Closed the eyes because of the fear.	
	The fear was overcome and learned enthusiastically.	
Learning a valuable thing	Felt the gratitude regarding the decision that was not easy which was given fully.	Felt sorry throughout the practice.
		Felt grateful regarding the dead body donation.
	Acquired the valuable knowledge through the body that was given fully.	The time for directly confirming the things that were learned through the theory.
		It seems that it will prove to be helpful to my major.
The mind for facing the human beings has become deep	Got around to self-examining in retrospect through the cadaver practice process.	Regretted having practiced with an elated mind.
		Regretted about my practice attitude which was not reverent.
	Thought about a human being while seeing a cadaver.	I felt said when seeing the corpse.
		Understood about the thoughts behind the donation of a dead body.
The feeling that I am gradually becoming a person who tends the sick	The preparations for becoming an expert.	Through the cadaver practice, the fact that being a nurse is a professional job touched my heart.
		I started having the sense of responsibility of becoming an expert.
	It seems that it will prove to be of help for me when I am a nurse later on.	It seems that it will be helpful to the actual nursing.
		I confirmed my aptitude as a nurse.
The deliberations regarding the sound giving	The thought on the dead body donation changed.	Because of the indeavour attitudes of several persons, I did not want to donate the dead body.
		Because I wanted a comfortable passing away, I did not want a donation of the dead body.
	A worry about the occupational duty.	I want to donate the dead body for the development of medicine.
		I want to donate the dead body for the junior medical personnel.

껏 기대함’ 등 2개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카테바 실습 전에 사체를 직접 봐야 한다는 두려움과 시신 처리를 위한 약품 냄새에 대한 소문 등으로 스스로 카테바 실습을 잘 해낼 수 있을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 반면에 해부학 책에서 이론으로만 배웠던 첫 카테바 실습에 대한 기대와 해부학을 그림이나 모형이 아닌 카테바를 직접 볼 수 있다는 들뜬도 있었다. 간호학과 저학년 학생으로 카테바 실습에 대한 심적 부담감도 있지만 처음 경험한 실습에 대한 한껏 기대하는 마음도 동시에 존재하는 양가감정도 있었다.

“영화 같은 것도 보면 해부학 실습 공포영화도 있었잖아요. 그것 보고 ‘진짜 그러면 어떻게 하지?’ 두려운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진짜 냄새 때문에 토한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저도 역하다고 들어가지요”

“기대요, 처음 경험해보는 것에 대한 기대요. ‘내가 배운 것을 실제로 보면 어떨까?’라는, 그 장면을 계속 상상해왔던 것 같아요. 어떤 모습일지 하기 전에 되게 설렸어요. 사진이나 그림으로 본 것을 직접 만지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3.2 실제에 맞닥뜨림

‘실제에 맞닥뜨림’은 ‘실체는 다른 경험’, ‘인체가 대단한 작품임을 깨달음’, ‘무서움을 떨치고 실습에 매진함’ 등 3개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카테바 실습을 통해 카테바를 직접 보니 책에서 배운 그림이나 모형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과 카테바가 살아 있는 몸과 다름을 알게 되었다. 카테바 실습이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고 무수히 많았던 소문을 듣고 준비했던 몸과 마음의 준비가 잘못되었음을 경험하게 되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카테바 실습을 통해 인체가 견고하고 과학적인 구조와 기능을 가졌음을 확인하게 되고, 또 인체가 대단한 작품임을 깨닫게 된다. 처음에 카테바를 보고 무서움에 눈을 감았고, 무섭지만 열심히 배우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무서움을 떨치고 실습에 매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카테바 실습에 맞닥뜨리면서 열심히 실습에 매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부학 책 봤을 때랑 너무 다르고 허파도 ‘이게 뭐지?’ 이자도 지방덩어리인줄 알았는데 설명 듣고 서야 이자인 걸 알고 책은 표면적인 것만 보여 주는데 실제로 보니까. 횡격막도 그렇게 질길 줄 몰랐어요. 크기도 생각과 달랐어요. 간도 되게 크고 두꺼웠어요. 살아있는 몸도 그런 느낌일까? 느낌은 다르다고 생각을 했어요. 촉감은 책으로 느낄 수 없는 것이잖아요. 친구들이 선배들이 다 그랬다고 밥 먹지 말라고, 가서 다 토하니까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진짜 점심도 안 먹고 가고, 전날 고기도 안 먹고, 고기랑 비슷할까봐 걱정했어요. 많이 과장 되게 듣다 보니까.”

“혈관, 신경 이런 게 정말 안 보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되게 선명하고 잘 보이고 놀러 봤는데 정말 질긴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정말 대단하구나. 정말 신기했어요. 몸이 참! 과학적으로 만들어져 있고, 신기하게 만들어져 있고, ‘신이 대단한 작품을 만들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한테 완벽하게 해주었지만 우리가 이용을 못한 것뿐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 무서웠어요. 소문 들어도 아무 걱정 없이 호기심 반으로 갔었는데 비닐 벗기는 순간 보자마자 그냥 약간 살짝 무서웠어요. 장기들도 처음 보고 그러니까 좀 걱정됐어요. 진짜 제가 좋아하는 과목이니까 해부학 수업 시간에 배웠던 것을 생생하게 할 수 있는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잖아요. 열심히 해보려고 했습니다.”

3.3 값진 것을 배움

‘값진 것을 배움’에는 ‘온전히 내어 준 쉽지 않은 결정에 감사한 마음이 들’, ‘온전히 내어 준 몸을 통해 값진 지식을 얻음’ 등 2개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몸을 기증해준 쉽지 않은 결정과 가족들의 힘든 등의 등에 카테바 실습 내내 감사하고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온전히 내어 준 몸을 통해 이론으로 배운 것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이었다고, 고학년이 되면 배우게 될 전공과목에 도움이 될 것을 확인하면서 값진 지식을 얻게 된다.

“이제 시체 막 이렇게 만지고 막 뜯는 것도 보여주고 하면서 ‘아, 진짜 이분들에게 정말 죄송하다’ 이게 뜯으면 가족들은 다 어떻게 생각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두

번제는 정말 죄송한 마음이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죄송하고, 감사했어요. 저희한테 이런 기회를 주신 거잖아요.”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책에서 보는 것보다 직접 보는 것과 느낌이 기억에 확 남아요. 아직도 기억에 남아요. 직접 책으로 봤고 또 만져 보고 느끼고 보고 했으니까, 그냥 일학년 때 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억에 남아서 오래 지속 될 것 같아요.”

“이게 이거였구나’ 안 본 학생들 보다 저희가 봤으니까 북막 앞쪽에 있는 것과 뒤에 있는 것을 봤으니까 그곳에 문제가 생긴다면 진짜 문제가 크겠다. 공부를 하면서 더 쉽게 이해를 할 것 같아요. 학년이 올라갈수록 좀 더 본 것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3.4 인간을 대하는 마음이 깊어짐

‘인간을 대하는 마음이 깊어짐’에는 ‘카데바 실습 과정을 통해 스스로를 반성하게 됨’, ‘카데바를 보면서 한 인간을 생각하게 됨’ 등 2개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처음 해보는 카데바 실습에 들뜬 마음으로 실습에 임하게 된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카데바를 한 인간으로 바라보게 되고 준비되지 않은 자신들의 태도에 스스로들 반성하고 후회를 한다. 시신기증을 하게 된 마음도 헤아려 보고 오래된 카데바를 보면서 마음이 아파 오고, 대단한 결심에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와 같이 참여자들은 짧은 실습시간이었지만 카데바를 보면서 인간을 생각하게 되고, 인간을 대하는 마음이 깊어지게 된다.

“저는 처음 시체를 만졌을 때 미안했어요. 경건한 마음으로 만져야하는데, 들뜬 마음에 이리저리 만져서 미안했어요. 다 저희 선배님들이고 사람인데, 들뜬 마음에 휘젓고 한 것, 보물 찾듯이 해서 마음이짐이 덜 되지 않나 하는 후회감이 들었어요.”

“조금 오래된 시신이어서 그런지 마음이 아팠어요. 물론 본인 뜻에 하셨지만, 다 발가벗겨지고, 근육 하나하나 해부한 모습에 불쌍하다 생각했어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기부를 했을까요? 그의 가족들도 동의를 했을 텐데 어떤 생각으로 했을까? 자기가 죽고 나서 이루어지는 일

이지만, 어떻게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대단하고 존경스러웠어요.”

3.5 간호인이 되어감을 느낌

‘간호인이 되어감을 느낌’에는 ‘전문인이 되어 가기 위한 준비’, ‘훗날 간호사로서 도움이 될 것 같음’ 등 2개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참여자들은 카데바 실습을 경험하면서 새삼 간호사가 전문직이라는 것이 피부에 와 닿게 되고, 그 과정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한 책임감을 느끼면서 카데바 실습이 전문인이 되어가기 위한 준비과정으로 인식하게 된다. 참여자들은 카데바 실습이 실제 간호에 도움이 될까라 생각이 들고, 어려운 실습과정을 경험하면서 스스로가 간호사로서 적성에 맞다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와 같이 참여자들은 카데바 실습은 전문인이 되어 가기 위한 준비이며, 실습과정이 훗날 간호사로서 도움이 된다는 것을 경험하면서 스스로 간호 전문인이 되어 가는 것을 느끼게 된다.

“뭔가 뿌듯함도 있고, 학과에 대한 자부심도 생기고 웬지 간호사가 되고 싶다면 꼭 해봐야 한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간호가 전문직이라고 하지만, 그런 게 피부에 와 닿지 않았는데, 전문직이 된 기분이었어요. 소중한 경험이라서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이 부분에 대해 더 잘 알았더라면, 덜 죄송하게 제 자리에 맞춰났을 텐데,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선 합당한 전문지식과 공부도 필요한데, 전문직이야! 간호사야! 라는 생각만 하지 말고,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카데바 실습, 간호학 공부, 임상에 나가서 환자를 대하는 것 모두요.”

“만약에 수술실간호사였다면, 혈관수술 이런 걸 할 때는 좀 더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나중에 임상에 나가면, 요양병원 같은 곳을 가면 욕창이 심한 분들의 상처에 대한 거부감이 적을 것 같아요. 하면서 좀 적성에 맞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기절할 것 같고 무섭고 꺼려졌는데, 하다보니까 ‘내가 시체도 다룰 수 있는데, 살아있는 사람도 다룰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적성에 맞는 지도 의문이었는데, 하면서 적성에 맞다고 생각하고.”

3.6 온전히 내어줌에 대한 숙고

‘온전히 내어줌에 대한 숙고’에는 ‘사체기증에 대한 생

각이 바뀐’, ‘직업적 의무에 대한 고민’ 등 2개의 주제로 구성되었다. 카테바 실습에서 몇몇 친구들의 카테바를 존중하지 않고 쉽게 다루는 실습 태도와 학생들이 장기를 꺼내고 만지는 과정 등을 지켜보면서 편히 보내고 싶은 마음에 사체 기증을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반면에 카테바 실습을 통해 의학발전과 후배 의료를 위해 지금의 기증자들처럼 사체를 기증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또한 평소에는 깊게 생각하지 않았던 시신기증에 대해 미래의 간호인으로서, 또 다음 세대를 생각하는 세대로써 진지한 고민을 하게 된다.

“실습을 하기 전에는 시신기증은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저희가 너무 쉽게 생각 하니까 그런 생각이 없어졌어요 왜냐면 가시는 몸 편하라고..... 저는 아빠가 장기기증과 시체기증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제가 직접 체험하니 말리고 싶어졌어요.”

“실은 제가 간호학생으로 큰 꿈을 가지고 있어서 의학 발전에 큰 기여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의료인으로써 이 정도는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중에 간호사나 의사가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증하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저도 이제 나중에 간호사가 될 사람이고”

4. 논의

본 연구에서 나타난 간호대학생의 카테바 모델을 이용한 인체 해부 관찰 경험의 구조는 6개 범주인 카테바 실습에 대한 양가감정, 실제로 맞닥뜨림, 값진 것을 배움, 인간을 대하는 마음이 깊어짐, 간호인이 되어 감을 느낌, 온전히 내어줌에 대한 숙고 등으로 도출되었다.

참여자들은 간호학과 저학년 학생으로 카테바 실습에 대해 심적 부담감도 있지만 처음 경험하는 카테바 실습에 대해 한껏 기대하는 마음도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고, 이는 김미희, 채명정(2012)의 연구에서도 이를 낮친 기다림으로 표현하였으며[7], 카테바 실습에 대한 양가감정을 갖는 것이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카테바 실습의 첫 경험을 긍정적이고 도전적인 경험이지만[10] 소수의 학생에서 정신적인 스트레스

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대부분의 학생이 카테바 실습에 대한 심리적인 준비를 하고 실습에 임했기 때문이라 하였고[11], 간호학과와 의과대학생 모두에서 서로 비슷한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카테바 실습에 맞닥뜨리면서 상상과 소문, 그림 등이 실제와는 다르다는 것을 느끼며 열심히 실습에 매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해부학 교육에서 시신해부실습은 학생들에게 죽음을 현실로 느낄 수 있게 해주며, 생물학적 변이, 병적 변화와 의학의 기본 언어를 가르치며 사람 몸의 구조를 3차원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도움을 준다고 하였다[12]. 또한 참여자들은 카테바 실습을 통해 이론으로 배운 것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이었고, 고학년이 되면 배우게 될 전공과목에 도움이 될 것을 수궁하면서 값진 지식을 얻게 된다. 김덕임의 연구에서 간호대학생들이 시신해부실습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이유로 ‘장기의 실질적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 (51.5%)’, ‘임상에 도움 (17.5%)’, ‘학과특성 (14.6%)’, ‘책보다 도움이 될 것이다 (11.7%)’, ‘이론으로 부족하다 (2.9%)’ 등으로 나타났다[6].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해부학실습을 통해 시신의 구조를 설명하고 토의 하는 과정에서 전공과의 연계성, 언어적 의사소통 등이 학업성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 카테바 실습 필요성에 대해 필요하다고 답한 간호대학생들은 81.6%이었고 교수들은 95.5%이었다[6]. 카테바 실습의 필요성에 대한 생각이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여 간호대학생에게 카테바 실습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참여자들은 카테바 실습을 통해 인체가 대단한 작품임을 깨달았다고 했는데, 이는 의대생들이 복합적인 신체에 대한 경이감과 아름다움, 신비감을 느낀다는 결과[15]와 유사하였다. 이처럼 카테바 실습은 해부학을 배우는 간호대학생에게는 꼭 필요한 실습이다. 그러나 카테바 실습은 여건이 좋은 소수의 간호대학에서 가능한 실습이지만 이마저 제한적인 환경과 시간 속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에 카테바 실습과 유사한 다양한 교육자료 개발이 필요하며, 특히 한국인 인체에 대한 교육용 시각자료개발이 중요하다[15].

참여자들은 카테바를 보면서 인간을 생각하게 되고, 인간을 대하는 마음이 깊어지게 되는데,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카테바 실습 전보다 후에 인간의

삶과 존엄성에 대한 생각이 깊어진다고 하여[16], 본 연구를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처럼 카테바 실습은 해부학적 이론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과 존엄성, 생명윤리 등의료인에게 꼭 필요한 윤리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된다. 이에 간호학과 교육목표에 맞는 맞춤형 해부실습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점차 카테바 실습을 통해 참여자들은 스스로 간호인이 되어 가는 것을 느끼게 되는데 이는 간호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본인이 전공하는 간호학문을 조금은 맛보았다고 느끼고, 간호학도로서 자화상을 찾아가는 과정이라 하였고[7], 의과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해부학실습은 의사가 되는 길에 접어들었음을 실감하고 전문성에 접근한다고 하여[17],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처럼 간호대학생들은 카테바 실습을 통해 직업적 정체성과 전문성을 확인하며 간호인으로서 마음가짐을 다잡는 기회가 되었다.

카테바 실습을 마치고 참여자들은 시신기증에 대한 진진한 고민을 하게 되었는데, 보건계열 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카테바 실습 후에 인간의 삶과 존엄성에 대하여 더 깊게 생각하게 되었는지를 분석한 결과 평소에 생각하는 것보다 해부실습 후 인간의 삶과 존엄성에 대하여 깊게 생각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추후 시신기증 의향은 낮게 나타났으며[16], 이는 본 연구에서 확인된 몇몇 학생들의 카테바 실습 태도에서 느끼는 편치 않은 마음과 편히 보내고 싶은 마음에 사체 기증을 하고 싶지 않은 이유로 유추해 볼 수 있다. 반면에 카테바 실습을 통해 의학발전과 후배 의료인을 위해 사체를 기증하고 싶다는 결과는 카테바 실습을 통해 이타심을 배우게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의과대학 생들도 카테바 실습 후에 시신을 기증해주신 분들에게 추모제를 통해 감사하는 마음과 함께 환자의 이익을 위하는 이타적인 치료자의 자세를 배운다고 하였다[17].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윤리적 가치관은 의무론적 성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는데[18,19], 이는 생명과 직결해 있는 직업적 특수성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간호대학생의 죽음의료 윤리 의식 점수가 생명의료 윤리의식 점수 보다 낮은 연구 결과로 나타났는데[20], 카테바 실습은 사체를 모델로 하기 때문에 간호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죽음에 대한 윤리의식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 죽음의료 윤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21]. 이처럼 카테바 실습은 전문직 간호사에게 필

요한 경험이며 중요한 교육과정이다. 카테바 실습 경험을 통해 두려움과 기대라는 양가감정도 겪게 되지만 간호사에 중요한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생명, 죽음 및 자신과 타인, 그리고 미래의 환자와의 관계를 재정립 해가면서 미래의 간호사로 준비되어가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를 바탕으로 간호대학생의 해부학 교육개선이 요구되는데, 해부학실습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카테바 실습의 기회를 보다 활성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카테바 실습의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이 처음 경험한 ‘카테바 모델을 이용한 인체 해부 관찰 경험’을 확인하여 간호학과에 맞는 카테바 실습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W대학교의 간호학생 19명을 대상으로 2개의 포커스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내용은 Colaizzi(1978)의 현상학적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카테바 모델을 이용한 인체해부 관찰한 경험의 의미를 분석한 결과 6개의 범주로 확인 되었다. 그 결과는 ‘카테바 실습에 대한 양가감정’, ‘실체에 맞닥뜨림’, ‘값진 것을 배움’, ‘인간을 대하는 마음이 깊어짐’, ‘간호인이 되어감을 느낌’, ‘온전히 내어줌에 대한 숙고’ 등 6개의 범주가 도출되었다.

간호학생들은 해부학의 이해를 돕기 위해 카테바 모델을 이용한 인체 해부 관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처음 접하게 되는 카테바 실습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과 기대를 갖게 되면서 실습에 임하게 된다. 그동안 이론으로 배웠던 해부학을 카테바 모델을 이용하여 실제로 보고 만질 수 있어 해부학의 지식 뿐 만 아니라 인체의 신비와 더 나아가 생명과 인간 존중, 이타적인 자세 등 값진 것을 배우는 시간을 갖게 된다. 카테바 실습을 통해 인간을 대하는 마음이 더 깊어지고 전문적인 교육과정을 통해 간호인이 되어감을 느끼게 된다. 또한 이타적인 마음으로 자신을 온전히 내어준 사체기증에 대한 깊은 감사와 더불어 자신과 미래의 의료인으로써 의학의 발전과 후대를 위해 사체기증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는 간호대학생이 카테바 실습을 통해 해부학에 대한 이해 뿐 만 아니라 인간의 이해, 생명 및 사 람에 대한 존중, 죽음, 직업에 대한 윤리 등을 경험하고 또 고민하면서 간호인이 되어가는 것을 확인하였다. 학 문적 시사점으로 간호대학생이 카테바 실습을 통해 해부 학실습에 대한 이론적 지식을 습득하는 것을 넘어서 직 접 환자를 돌보는 임상 실무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간호대학생에 게 알맞는 카테바 실습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과정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활용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카테바 모델을 이용한 해부학 실습에 대한 연구 로 인간의 경험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질적연구가 미흡하다. 다양한 질적 연구방법이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를 뒷받침하기 위해 저학년 간호학생 뿐 만 아니라 임상을 경험하고 카테바 실습에 임하는 간호 학생, 간호사, 다른 직종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이에 따른 다양한 질적 연구방법이 필요하다.

ACKNOWLEDGMENTS

This paper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fund of Wonkwang Health University in 2016.

REFERENCES

- [1] S, H. Jeong, "Human anatomy practice using the creative training techniques", *Medical Korea*. 2009.
- [2] Y. K. Kime, S. M. Cho, "Case report on the application of tele-education developed for the anatomy for education", *Korean Journal of Physical Anthropology*, Vol. 15, No. 3, pp. 169-174, 2002.
- [3] J. R. Waters, V. Meter, P. Perrotti, W. S. Drogo, R. J. Cry, "Cat dissection vs. sculpting human structures in clay: An analysis of two approaches to undergraduate human anatomy laboratory education", *Advan Physiol Educational*, Vol. 29, No. 2, pp. 27-34, 2005.
- [4] J. C. McLachlan, J. Bligh, P. Bradley, J. Searle, "Teaching anatomy without cadavers", *Med Educational*, Vol. 38, pp. 418-424, 2004.
- [5] J. L. Coulehan, P. C. Williams, D. Landis, C. Naser, "The first patient: Reflections and stories about the anatomy cadaver", *Teaching and Learning in Medicine*, Vol. 7, No. 1, pp. 61-66, 1995.
- [6] D. I. Kim, "Questionnaire Survey Analysis on Necessity of Cadaveric Dissection for Nursing Students: In Scope of Nursing Students and Professors", *Korean Journal Phys Anthropol*, Vol. 29, No. 2, pp. 119-125, 2015.
- [7] M. H. Kim, M. J. Chae, "A Study of Student Nurses' Observation Experiences of Human Body Dissection", *Journal of korean biological nursing science*, Vol. 14, No. 2, pp. 119-125, 2012.
- [8] D. L. Morgan, "Focus Groups as Qualitative research", Newbury Park, CA: Sage. 1997.
- [9] P. F. Colaizzi,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phenomenological alternative for psychology",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1978.
- [10] R. E. O'Carroll, S. Whiten, D. Jackson, D. W. Sinclair, "Assessing the emotional impact of cadaver dissection on medical students", *Med Educational*, Vol. 36, pp. 550-554, 2002.
- [11] D. Martin, B. Alexander, N. McCorry, W. David. "Appraisal and Consequences of Cadaver Dissection", *Med Educ Online* [serial online], Vol. 11, No. 16, pp. 1-9, 2006.
- [12] J. Older "Anatomy: A must for teaching the next generation", *Surg J R Coll Surg Edinb Irel*. Vol. 2, pp. 79-90, 2004.
- [13] J. H. Park, H. K. Im, J. H. Kim, "Convergence of Explanation Meeting in Cadaveric Dissection with Communication Skill : Correlation between Self-evaluation Factor and Academic Achievement of Medical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8, pp. 363-370, 2016.
- [14] J. Shapiro, V. P. Nguyen, S. Mourra, M. Ross, R. Leonard, "The use of creative projects in a gross

anatomy class”, Journal for Learning through the Arts, Vol. 2, No. 1, pp. 1-25, 2006.

- [15] D. J. Park, S. T. Lee, S. H. Lee, S. B. Lee, D. S. Shin, “A study on strategic Factors for the Application of Digitalized Korean Human Dataset”,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8, No. 2, pp. 203-216, 2010.
- [16] H. H. Yoo, C. H. Song, E. H. Han, H. T. Kim, “The Effect of Education Program of Cadaver Dissection for the Paramedical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Anthropology, Vol. 27, No. 3, pp. 145-154, 2012.
- [17] G. Y. Choi, J. M. Kim, J. H. Seo, H. J. Sohn, “Becoming a Doctor through Learning Anatomy-Narrative Analysis of the Educational Experience”, The Korean Journal of Physical Anthropology, Vol. 22, No. 3, pp. 213-224, 2009.
- [18] S. Y. Jeong, C. H. Kim, “Comparing the Ethical Knowledge, Ethical Values and Class Satisfaction by Students’ Cognitive Style to Develop the Convergent Nursing Ethic Clas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11, pp. 205-216, 2015.
- [19] K. J. Lee, E. Lee, Y. S. Park, “Compariso on Influencing Factors on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in Nursing Students and General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12, pp. 377-388, 2016.
- [20] E. J. Seo, N. H. Cha, “Relationships among Nursing Professional Values, Bioethics and Death Ethic Perception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5, pp. 349-358, 2016.
- [21] M. J. Yun, “A Study on the consciousness of Biomedical ethics, Attitudes Human tissue donation and transplantation”,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4, No. 11, pp. 407-416, 2016.

강 현 임(Kang, Hyun Lim)



- 2002년 2월 : 한림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08년 2월 : 이화여자대학교 간호대학(간호학박사)
- 2012년 3월 ~ 현재 : 원광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성인간호, 응급간호
- E-Mail : kang1813@hanmail.net

이 영 란(Lee, Yeong Ran)



- 1991년 2월 : 국군간호사관학교(간호학사)
- 2008년 2월 : 전북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석사)
- 2014년 2월 : 전북대학교 간호학(간호학박사)
- 2015년 3월 ~ 현재 : 원광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간호관리, 재난 및 응급간호
- E-Mail : sorarosa@hanmail.net